

문 의	특허심사2국 약품화학심사과	과 장 이유형 사무관 이형준	042-481-5588 042-481-8739
 	2018년 5월 16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5월 15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난임(難妊) 인구 20만 시대, 난임 치료제 개발 꾸준히 이어져

- 난임 치료제 국내 특허출원 10년새 8배 증가 -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이 속해 있는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소중함이 더해지는 5월이지만, 최근 들어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일 정도로 난임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¹⁾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난임이란, 말 그대로 임신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해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난임으로 진단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2만여명이던 난임 진단자 수는 2016년 22만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²⁾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이런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난임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난임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258건으로, 한 해에 적게는 17건, 많게는 34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매년 평균 26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 난임 치료제 유형을 크게 구분해보면, 합성화합물이 48%(124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이 40%(102건), 천연물이 11%(29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2]

1) 희망을 싹 틔우는 난임 치료(여성중앙 2017.07.0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

- 출원인의 국적을 분석해보면, 지난 10년간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70%(181건)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난임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외국의 제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내국인의 경우 2008년에는 2건에 불과했던 특허출원이 이후 증가하여 2017년에는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최근 들어 난임 치료제에 대한 국내 업계 및 학계의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붙임 3].
- 특히 천연물의 경우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90%(26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민간 요법과 같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전통의학지식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외국에 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실제 천연물이 특허 등록된 사례로는,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토사자, 복분자, 인삼, 구기자, 당귀 등이 배합된 한약이 착상 개선용 난임 치료 용도로 특허 등록을 받았고, 광동제약에서 출원한 생지황, 복령, 인삼, 구기자 등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이 정자 수 증가를 통한 남성 난임 치료 용도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특허 등록을 받은 예 등이 있다.
- 향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장점을 가진 이러한 천연물 의약품이 난임 치료제 시장에서 얼마나 비중을 높여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 한편, 난임 치료제 시장을 살펴보면, 세계적 제약회사 머크가 난임 치료용 배란 유도제 고날에프(Gonal-f)로 인해 2016년 1분기 동안 17.0%의 높은 매출 성장을 달성³⁾했고, 중국 난임 치료제 시장의 경우 2013년 약 1500억원 규모로부터 매년 20% 이상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추세⁴⁾를 고려해볼 때, 난임 치료제 시장의 규모 및 잠재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머크, 1분기 매출이익 ↑... 연매출 15억 유로 전망(데일리팝 2016.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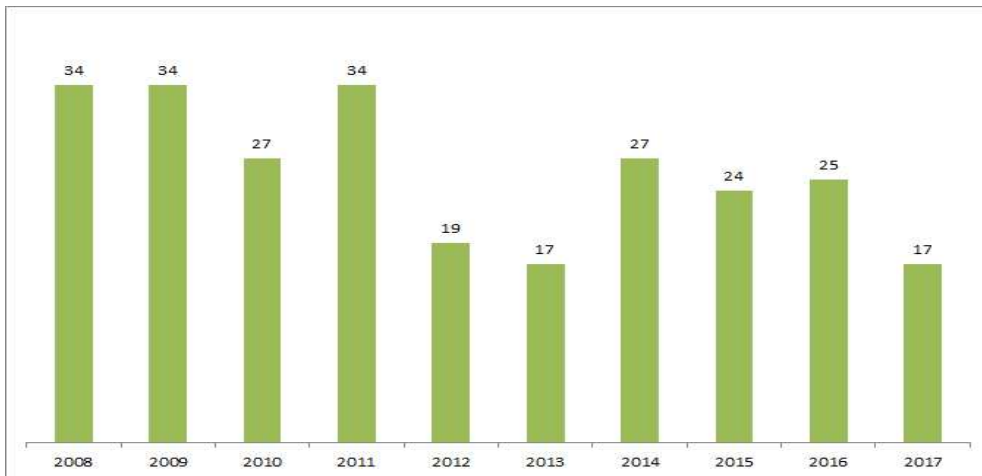
4) 동아ST, 불임치료제 '고나도핀NF' 중국 시장 진출(아시아경제 2014.09.05.)

- 특허청 이유형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난임 부부를 도울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절벽의 위협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난임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소 및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산 선점에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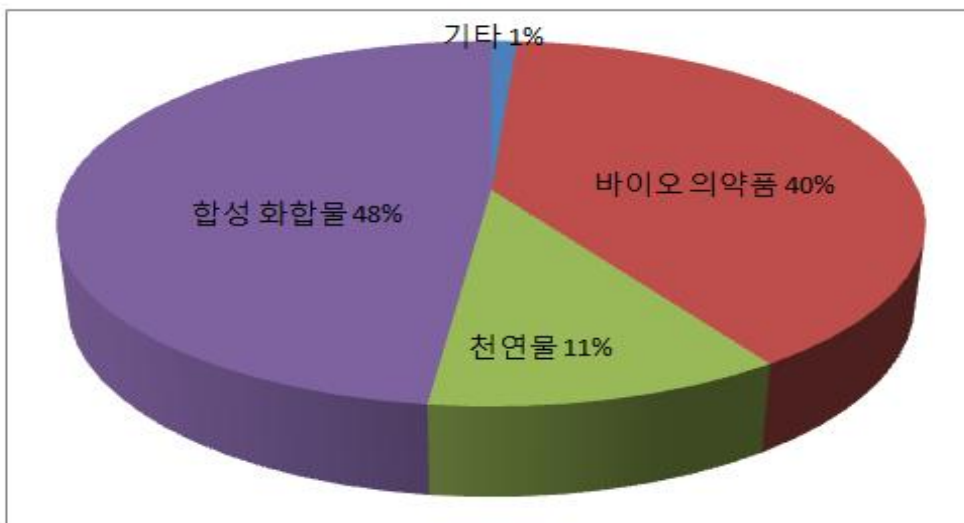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2국
약품화학심사과 사무관 이형준(☎ 042-481-8739)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난임 치료제 특허출원 현황('08~'17)



[붙임 2] 난임 치료제 유형별 비율('08~'17)



[붙임 3] 난임 치료제 내국인 특허출원 동향('08~'17)

